韓國漢詩에서의 「歸去來兮辭」의 형식적 변용

— 「歸去來兮辭」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

노우정*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귀거래혜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1) 「귀거래혜사」의 주제의 문제
   2) 「귀거래혜사」의 문체와 구성의 문제
3. 한국한시의 「귀거래혜사」변용 양상
   1) 독도사시(讀陶辭詩)
   2) 읍도사시(挹陶辭詩)
   3) 절도사시(節陶辭詩)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도연명은 동아시아에서 고상한 은사(隱士)의 표상이자, 문학가이며, 철인(哲人 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귀거래혜사」에 반영된 이상적인 전원생활의 정경 및 인생에 대한 심오한 철리와 자아성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귀거래혜사」에서 도연명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인생의 귀로에서의 방향설정, 대자연과 융화된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철학은 진솔하고 정취가 풍부한 시어나 장면과 결합되어 많은 문인들의 공감을 얻었고, 도연명과 같은 인생철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귀거래혜사」는 하나의 독창적인 문학 형식으로

* 梨花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www.kci.go.kr

인식되게 되었다.[1)]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많은 문인이 다양한 문학양식에서 「귀거래혜사」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귀거래혜사」를 사(辭)의 형식 외에 시가에도 수용하여 「귀거래혜사」에 반영된 대의를 취하고 시인이 추구하는 정신철학을 표출하였다. 「귀거래혜사」가 한국의 한문학과 회화는 물론 은일 문화에 폭넓게 수용되면서, 「귀거래혜사」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회화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 특히 개별 문인의 '귀거래'의식 형태와 한국과 중국의 화도사(和陶辭 연구는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2)] 연구자들은 「귀거래혜사」가 삼국에 전입된 이래 한국의 문인이 도연명의 생존철학과 탈속의 경계에 주목하였고, 모종의 생존방식을 표명하는 '귀거래' 의식은 문화적 측면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작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고, 한국의 도연명수용사에서 차귀거래사 이외의 형식 연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에 대한 연구 경향은 후대의 「귀거래혜사」에 대한 수용 연구를 통해 역으로 「귀거래혜사」의 특징과 성취를 조명하는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귀거래혜사」자체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는 중시 받지 못했다. 또한 「귀거래혜사」의 문학성에 기인하여 형성된 한국의

1) 조선시대의 崔演(1503-1549)은 「和歸去來辭幷序」에서 "천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사람됨을 생각해본다. 사(辭)의 뜻이 의미심장하고 여운이 길어 지금까지 회자 된다(千載之下, 想見其爲人, 辭意携永, 至今膾炙)"고 하여, 조선의 많은 문인이 도연명을 흠모한 것은 「귀거래혜사」에 반영된 도연명의 이상적인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문학성도 주목하였기 때문임을 알 게 한다.

2) 漢文學과 '歸去來' 또는 「歸去來辭」의 관계를 通觀하여 연구하고자 한 연구 성과들도 적지 않다. 南潤洙의 『韓國의 和陶辭 硏究』(서울 : 亦樂, 2004), 趙麒永의 「歸去來의 수용과 문학적 전개」(『淵民學志』 제2집, 1994), 하상규의 「韓國 自然詩歌에 끼친 陶淵明의 影響」(동아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6), 曹虹의 「陶淵明歸去來辭與海東漢文學」(『中国辭賦源流綜論』, 北京 : 中華書局, 2005), 朴浣植의 「「和歸去來辭」의 性理學的 意識樣相」(『語文硏究』 제36집, 2008), 金甫暻의 「韓國 和陶詩 硏究 序說」(『中國文學』 제66집, 2011) 등이 한국한문학과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의 수용관계를 辭, 詩, 時調 등의 영역에서 조명하였다.

www.kci.go.kr

도연명 수용사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주로 화도사의 내용 분석에 집중되어 형식적 변용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역으로 후대의 『귀거래혜사』의 수용 열기가 『귀거래혜사』의 독창적인 문학 특성에서 기인했다는 출발점에 다시 서서 『귀거래혜사』의 문학성을 조명해보는 기획을 할 수 있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귀거래혜사』를 수용한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 변용이 원작 『귀거래혜사』의 주제, 문체, 구성을 서로 다른 시선에서 수용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기성의 한국의 『귀거래혜사』의 논의가 수용자의 인생 역정과 연관 지어 논의되면서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원작 『귀거래혜사』의 독창성을 재확인하는 기획이다.

본고는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의 주제, 문체, 구성의 문학 특성에 대해 논의하여 원작 『귀거래혜사』의 예술적 특성에 기인한 수용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명 받지 못한 한국한시에서의 형식적 변용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원작 『귀거래혜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며, 한국한시에서의 『귀거래혜사』의 수용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귀거래혜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1) 「귀거래혜사」의 주제의 문제

도연명은 시가를 창작하면서 주제와 문체 방면에서 실험과 시도를 통해 일가(一家 를 이룬 문학가이다. 우리는 화도시의 열풍으로, 도연명이 시도한 여러 주제의 창조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귀로에 서서 흔히 겪게 되는 '배회(徘徊 省察 回歸 라는 주제가 문인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도연명의 '배회'와 '성찰' 그리

3) 袁行霈는 도연명이 시가 창작에서 음주, 배회와 회귀, 고궁안빈(固窮安貧), 농경, 생사

www.kci.go.kr

고 '회귀'의 주제가 응집된 「귀거래혜사」가 중국을 초월하여 오랜 기간 동안 큰 호응을 얻은 것은, 후인들이 이 주제가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연명 이전의 문학작품이나 도연명시에서도 '배회'와 '성찰' 그리고 '회귀'를 주제로 한 작품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를 주요 주제로 하여 문학작품에 철리와 인생철학을 투영한 작품은 「귀거래혜사」가 대표적이다.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에서 연원한 '귀거래'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본성(本性 으로 회귀하려는 자아의 외침에 대한 호응이다. 도연명은 한 인간으로서 '거마소리가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서 자연(自然 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자아의 외침을 경청하고, 과거의 자아를 반성하고 현재의 자아를 성찰하여, 중국의 문인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문인으로부터 큰 공명을 얻었다. 특히 후대의 많은 문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배회와 갈등 사이에서 본성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실천하지 못한 것과 달리, 도연명은 자신이 인생철학을 수양과 수신에 두고 '돌아가리라(歸去來兮 歸去來兮 로써 내면의 정신이 이끄는 지향을 실천하였고, 이것은 후대 문인이 그의 인생행로와 정신철학을 존숭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귀거래혜사」가 '자아'의 문제를 고찰하고 '자아'가 희망하는 삶에 대해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문인들이 「귀거래혜사」를 수용하면서, 도연명이 속세와 은거 사이에서의 '배회' 끝에 대자연, 고향, 본성으로 '회귀'의 문제에 대해 다른 시선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후인들은 정사(正史 를 근거로 도연명이 출사와 은거의 문제에서 배회하다 회귀를 결정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향리의 소인에게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 그 날로 인수를 풀고 관직을 버리고는 「귀거래혜사」를 지었다"[4]는 일화가 기록된 정사(正史 에 근거하여, 도연명이 은거한 원인이 '오두미절요(五斗米折腰 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또 심약과 소통의 견해에 근거하여 도연명이 진

(生死) 의 주제를 창조하였다고 보았다. (袁行霈, 『陶淵明硏究』, 北京 : 中華書局, 2009, 93-116쪽)

4) 沈約, 『宋書』 卷93 : "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吏小人. 卽日解印綬去織, 賦歸去來辭."

www.kci.go.kr

조(晉朝 劉裕 宋朝 를 섬길 수 없어서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고 끝내 출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5] '회귀'가 아니라 도피(逃避)라고 이해하기도 하였다.[6]

아이러니하게도 도연명 자신이 직접 「귀거래혜사병서」에서 배회를 종식하고 회귀하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지만, 후인들은 후세의 기록에 근거하여 도연명의 '배회'와 '성찰' 그리고 '회귀'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현듯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일었다. 무엇 때문일까? 본성이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억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배고픔과 추위가 비록 절박하지만 자기를 어기는 것은 병을 부른다. 이전에 벼슬을 지낸 것 또한 다 생계로 인해 스스로를 부린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고 비분강개하며 평생의 뜻을 실현하지 못함이 심히 부끄러웠다. 일 년을 채우고서 옷을 챙겨 밤에라도 떠나려 하였는데, 때마침 정씨에게 시집갔던 누이동생이 무창에서 죽었다. 마음이 장례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고 직책에서 벗어났다. 중추에서 겨울까지 관직에 있은 지 80여 일 만의 일이다. 이 일로 본심을 따르게 되어 글의 제목을 '돌아가리라'라고 하였다. 을사년 11월 서문을 쓴다.[7]

도연명이 외관상으로 출사에 대한 방황을 끝내고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것은 405년 11월 겨울이었다. 그는 관직을 버리고 '귀거래'하게 된 이유를 '이복 누이동생의 죽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듯이, 도연명은 본성으로의 회귀와 수신을 중요한 가치로 보았고, 관직에 얽매여 사는 인생은 육체가 정신을 부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과 가난으로 인한 속세의

5) 『宋書・隱逸傳』卷93 : "自以曾祖晉世宰輔, 恥復屈身後代, 自高祖王業漸隆, 不復肯仕. ; 「陶淵明傳」, 『陶淵明資料彙編』 上冊 : "自以曾祖晉世宰輔, 恥復屈身後代, 自宋高祖王業漸隆, 不復肯仕."

6) 노우정, 「주희의 도연명의 시가 수용과 인격 비평: 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제35집, 온지학회, 2013. 143-145쪽 참조.

7) 「歸去來辭」 : "及少日, 眷然有歸歟之情. 何則? 質性自然, 非矯勵所得, 饑凍雖切, 違己交病. 嘗從人事, 皆口腹自役. 於是悵然慷慨, 深愧平生之志. 猶望一稔, 當斂裳宵逝. 尋程氏妹喪於武昌, 情在駿奔, 自免去職. 仲秋至冬, 在官八十余日. 因事順心, 命篇曰歸去来兮. 乙巳歲十一月也."

www.kci.go.kr

구속 사이에서 늘 번민하다가 결국 '본성이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억지로 바꿀 수 없는' 자아에 대해 성찰하고 '지금이 옳고 어제가 그릇됨을 깨달아'[8] 본성과 대자연으로 '회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이렇게 도연명이 진정으로 귀향하게 된 것은 '성질이 자연을 사랑하여 어긋남이 없어'[9] 대자연과 본성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 '회귀에 대한 열망'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출사를 결심한 도연명의 처음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고,[10] 더구나 명예와 부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인(世人 ㅢ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다. 현령이 된지 80여 일 만에 한창 양명(揚名 ㅔ 힘쓸 41세의 나이에 「귀거래혜사」를 지어 그가 관직을 버리고 귀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적 가치 추구 이상의 표면적인 이유가 필요했다. 무창에 시집간 사랑하던 동생의 사망은 그가 방황을 종식할 만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무창의 이복 누이동생은 도연명의 유일한 혈육으로 도연명은 그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직함으로써 효제(孝悌 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의 우애를 지키는 것은 군자로서 인(仁 ㅢ 근본을 실행한 것이므로,[11] 당시 도연명이 누이동생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평소 관직보다 귀향에 뜻을 두었던 도연명에게 귀향 할 만한 충분한 명목이 되었을 것이다. 누이동생의 죽음은 그가 세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표면적인 사직의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귀거래혜사」에 나타난 '배회'와 '회귀'는 도연명의 정신적인 부분과 더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도연명의 '배회'와 '회귀'는 단순히 육체의 대자연으로의 귀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연명의 자아, 탈속의 경계, 자유에 대한 갈망 등 자아와 인생가치의 깨달음과 실천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

8) 「歸去來辭」: "覺今是而昨非."
9) 「歸去來辭」: "質性自然, 非嬌歷所得."
10) 「歸去來辭幷序」: "余家貧, 耕植不足以自給. 幼稚盈室, 瓶無儲粟, 生生所資, 未見其術. ……於時風波未靜, 心憚遠役. 彭澤去家百里, 公田之利, 足以爲酒, 故便求之."
11) 『論語・學而』: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www.kci.go.kr

러나 도연명의 '배회'와 '성찰' 그리고 '회귀'의 주제는 많은 작품에서 수용되었지만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관점과 도연명의 회귀에 대한 견해는 이견이 생겨났다. 도연명이 밝힌 누이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사직의 원인과 '성찰'의 문제는 간과되고, 오히려 후인들은 도연명이 회귀한 원인이 '오두미절요(五斗米折腰 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거나 절조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었고, 도피(逃避 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결국 수용자의 인생경험과 가치관을 차치하고 볼 때, 그들이 정사나 전인(前人 의 견해를 토대로 사직의 동기와 내면의 '성찰' 보다도, 도연명의 사직의 행동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며, 서로 다른 시선에서 원작 「귀거래혜사」를 이해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2) 「귀거래혜사」의 문체와 구성의 문제

도연명은 「귀거래혜사」의 장르가 '사(辭 라는 것을 제목에 직접 게시하였다. 이것은 그가 굴원이 창조한 독특한 풍격의 장르인 '사(辭 를 계승한 작품이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귀거래혜사」는 '사(辭 의 장르로 인식되며, 동아시아에서 도연명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체로 역할 하였다. 당대(唐代 에 들어서서 도연명의 인품, 행적, 은일과 풍류를 상징하는 시어는 많은 시인들에게 환영받는 제재가 되었으나, 그 문체의 독창성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도연명이 송대(宋代 에 들어서서 크게 존숭을 받기 시작하면서, 도연명의 「귀거래혜사」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고, 「귀거래혜사」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의 독창성을 주시한 것은 송대 산문대가 歐陽修(1007-1072)로, 그는 "진(晉 의 문장은 오직 도연명의 「귀거래혜사」 한 편 뿐이다"[12]라는 평어로 도연명이 「귀거래혜사」에서 발휘한 뛰어난 창조성을 발견하였다. 남송의 시론가 嚴羽 『滄浪詩話・詩體』에서 인물에 따라 시체를

12) 胡仔, 『苕溪漁隱叢話・前集』 卷3 「韓吏部下」 : "晉無文章, 惟陶淵明歸去來一篇而已."

www.kci.go.kr

분류하면서 도연명의 시체를 도체(陶體)라고 정의하였다.[13] 이것은 도연명의 개성적인 풍격에서 나온 표현수법과 다양한 형식을 바탕으로 이룬 도연명의 독특한 문체에 대해 문학사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도연명의 풍격에서 나온 대표적인 문체는 전거체(田居體)이지만, 이밖에도 도연명은 각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따른 체제를 찾아내어 새로운 문체를 창조하였다.[14] 도연명은 「桃花源記幷詩」 記 詩 「五柳先生傳」에서는 미래의 자신의 삶과 철학을 주제로 한 자전문학을 창조하기도 하였으며, 생전 사망을 주제로 한 「自祭文」도 도연명만의 독특한 문체로서 후인들에게 수용되었다. 엄우는 이러한 도연명의 문체에 대한 창조성과 독창성에 주목하여 도연명의 문학작품을 '도체(陶體 陳知柔 『休齋詩話』 楚辭 辭 와 「귀거래혜사」의 문체를 비교하여 평론하였다. "도연명이 팽택령을 그만두고 「귀거래혜사」를 지어 스스로 사(辭 라고 명명하였다. 그렇지만 「귀거래혜사」는 문사(文辭 의 구성을 위해 연구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것으로, 앞도 없고 끝도 없으며, 완료도 없고 시작도 없으며, 앞은 가(歌 辭 가 아니다"[15]라고 하여 귀거래사의 독창적인 문체가 도연명이 구성을 위해 고안한 무병신음의 결과이며, 도연명이 「귀거래혜사」를 사(辭 라는 문체로 명명하긴 하였지만, 「귀거래혜사」는 결국 가(歌 辭 劉熙載 .813-1881)는 「귀거래혜사」는 사의 형식이지만 초사와 연원관계에 있는 문체가 아니며 독자적인 문체로서 도연명이 새롭게 창조한 것임을 언급하였다.[16] 이러한 시론가들의 평론을 통해 「귀거래혜사」를 모방하는 열기가 식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귀거래혜사」가 가진 신선하고 새로운 형식과 독창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3) 嚴羽, 『滄浪詩話・詩體』: "以人而論, 則有蘇李體, 曹劉體, 陶體, 射體……."
14) 張伯偉, 「陶淵明的文學史地位新論」, 『人文中国学報』第15期, 上海古籍出版社, 2009, 38-50쪽.
15) 陳知柔, 『休齋詩話』: "陶淵明罷彭澤令, 賦歸去來而自命曰辭. …… 歸去來則自出機杼, 所謂無首無尾, 無終無始, 前非歌而後非辭."
16) 劉熙載, 『藝概・賦概』권3: "歸去來辭不必學騷, 而皆有其獨至處."

www.kci.go.kr

「귀거래혜사」의 독창성은 문체뿐만 아니라 도연명이 '문사(文辭 의 구성을 위해 연구와 고심 끝에 구성한' 독창적인 서술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연명은 「귀거래혜사」에서 자신이 출사와 은사 사이에서의 배회를 종식하고 선택한 '회귀'에 대한 열망을 응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세 시점인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공존시키는 삼단구성 방식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현재, 미래, 과거에 존재하는 자아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도연명이 창안해 낸 서술방식으로, 도연명은 「귀거래혜사」에서 서로 다른 시점의 공존과 전환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며 미래의 자아의 삶을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몇몇 시론가가 「귀거래혜사」의 독창적인 시간상의 구성과 안배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금(金　王若虛 .174-1243)는 「귀거래혜사」 한 작품에 시점이 다른 시공간이 공존함으로써 이루어진 독창적인 서술방식에 대해 거론하였다. 그는 「귀거래혜사」의 문장은 상상하여 말한 부분과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서 말한 부분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귀거래혜사」의 창작은 돌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일을 도연명이 상상하여 말한 것이며, 길을 묻는 장면 다음부터는 다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만두자(已矣乎 라고 말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상하여 쓴 부분을) 총결하여 끝을 낸 것이라고 보았다.[17] 그리고 원(元　劉祈 : "도연명의 「귀거래혜사」는 앞에는 상상하여 썼고 뒷부분은 직접 서술한 것으로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다"[18]고 하여 「귀거래혜사」의 구성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단일 시점이 아니며, '미래'의 일을 '상상(想像 으로 전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袁行霈 : 「귀거래사」의 편년을 규명하는 관점에서 창작 시점을 논하며 "(「귀거래혜사」의) 「서」 끝에 '을사년 11월에 쓴다'라고 기록하여 이미 작품을 쓴 시간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장차 돌아가려 하는 것이지 아직은 돌아가지 않은 때이다. 문장에 돌아가는 길이나 돌아간 후

17) 王若虛, 『滹南遺老』권34 : "凡爲文有遙想而言之者, 有追憶而言之者, 各有定所, 不可亂也. 歸去來辭將歸而賦耳, 旣歸之事, 當想像而言之. 今自問途而下, 皆追錄之語. …… 已矣乎云者, 所以總結而爲斷也."

18) 劉祈, 『歸潛志』권8 : "淵明歸去來辭, 前想像, 後直述, 不相侔."

www.kci.go.kr

의 일을 언급한 것은 상상하여 말한 것이다"[19]라고 함으로써, 이 작품에서 돌아가는 길과 돌아간 후의 장면들은 모두 미래의 정경을 상상하여 한 말이라고 분석했다. 도연명 연구자들 간에 「귀거래사」의 시간상의 구성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이들은 「귀거래사」의 서술방식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래를 서술한 부분은 상상을 통해 구상한 것이라는 점을 「귀거래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파하고 있다.

「귀거래혜사」의 삼단구성방식을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돌아가리로다!
전원이 황폐해지려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
이미 스스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어찌 근심하며 슬퍼하기만 하겠는가?
지난날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다가올 날은 바꿀 수 있음을 알았다.
진실로 길을 잃었으나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으며
지금이 옳고 어제가 그릇되었음을 깨달았네.

2
배는 흔들흔들 대며 경쾌하게 나아가고
바람은 살랑살랑 옷깃에 불어온다.
길 가는 사람에게 앞길을 물으며
희미한 새벽빛 원망한다.
드디어 내 오막살이 보이니
기뻐서 달려간다.
어린 하인 놈이 기뻐하며 맞아주고
어린 아들 놈이 문에서 기다린다.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그대로네.
아이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니

19) "序末著'乙巳岁十一月也', 已言明寫作時間, 乃將歸未歸之際. 至於文中涉及歸塗及歸後情事, 乃想象之辭." (陶潛撰, 『陶淵明集箋注』, 袁行霈箋注, 北京 : 中華書局, 2003, 465쪽)

www.kci.go.kr

술동이에 술이 가득하다.
술병과 잔 들고 자작하며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남쪽 창에 기대어 거리낌 없어
누추한 좁은 방이지만 편안하다네.
날마다 정원을 거니니 흥취가 일고
문은 있어도 언제나 닫혀 있다.
지팡이 짚고 발길 멎는 대로 거닐다가 쉬며
때로 머리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솟아오르고,
새는 날다 지쳐 돌아갈 줄을 안다.
해가 어둑어둑 지려하면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거린다.
돌아가면
교유를 쉬고 노는 것을 단절하리라.
세상이 나와 서로 어긋나 맞지 않으니
다시 수레를 몰아 무엇을 구하리오.
친척의 정겨운 말에 기뻐하고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시름을 잊는다.
농부가 내게 봄이 왔음을 알리면
서쪽 밭에서 일을 할 것이다.
휘장 친 수레를 타기도 하고
외로운 배를 젓기도 하며
깊숙한 골짜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가파른 언덕을 지나가기도 하련다.
나무는 무성해지려 하고
샘물은 졸졸 흐르기 시작하면
만물이 제 때를 만난 것을 부러워하며
나는 인생살이 다해 감을 탄식하겠지.

3
그만두자,
이 몸 세상에 기탁할 날 더는 얼마 되지 않거늘
어찌하여 마음에 따라 생사를 맡기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허겁지겁 어디로 가려 했던가!

www.kci.go.kr

부귀는 내 바라는 바가 아니고
신선은 기약할 수 없는 법.
나의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홀로 나서서
때로는 지팡이를 세워놓고 김매고 흙을 북돋웠고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는 시를 읊조렸었다.
잠깐이나마 자연의 변화를 따르다 죽는 것이니
천명을 즐길 뿐 더 무엇을 의심하리요![20]

「귀거래혜사」는 현재, 미래, 과거의 자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부분은 현재의 시점에서, 전원을 떠나 육체가 정신을 부리게 만든 과오를 반성하고, 대자연과 본성으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다. [2]부분은 미래의 시점에서, 가족·친척과 친분을 나누며 삶의 기쁨을 느끼고, 대자연에서 유유자적과 소유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유와 본성을 찾아가는 자아에 관한 내용이다. [3]부분은 과거의 시점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 속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대자연에서 자적과 소유를 즐기고 궁경했던 시절이라는 것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따르고 천명을 즐기며 지난날에 느꼈던 행복을 다시 소망한다는 것을 밝혔다.

「귀거래혜사」의 시간상의 구성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물론 '미래' 시점이다. 「귀거래혜사」는 도연명이 귀향한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벼슬을 그만 둔 직후에 쓴 것이며, 귀향하는 장면이나 귀향이후의 장면은 모두 상상하

20) 「歸去來兮辭」: "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 旣自以心爲形役, 奚惆悵而獨悲.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實迷塗其未遠, 覺今是而昨非. 舟搖搖以輕颺, 風飄飄而吹衣. 問征夫以前路, 恨晨光之熹微. 乃瞻衡宇, 載欣載奔. 僮僕懽迎稚子候門. 三逕就荒, 松菊猶存. 攜幼入室, 有酒盈罇.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顔.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園日涉以成趣, 門雖設而常關. 策扶老以流憩, 時矯首而游觀.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歸去來兮, 請息交以絶游. 世與我而相遺, 復駕言兮焉求. 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 農人告余以春及, 將有事于西疇. 或命巾車, 或棹孤舟. 旣窈窕以尋壑, 亦崎嶇而經丘. 木欣欣以向榮, 泉涓涓而始流. 善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已矣乎, 寓形宇內復幾時. 曷不委心任去留, 胡爲乎遑遑欲何之. 富貴非吾願, 帝鄕不可期. 良辰以孤往, 或植杖而耘耔. 登東皐以舒嘯, 臨淸流而賦詩.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

www.kci.go.kr

여 쓴 것이다. 특별히 도연명은 「귀거래혜사」에서 육체는 번민과 갈등에 얽매인 현실에 있으면서도, 그가 희구하는 자유로운 자아의 형상은 미래에 두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집을 떠올리며 하인과 아이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광경을 상상하고, 지인과 교류하고 책과 거문고로 은일생활을 향유하기를 희망한다. 그가 희구한 미래의 자아는 자연(自然 本性 順天 안빈낙도(安貧樂道 의 경지에서 자유롭고 한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후인들이 「귀거래혜사」가 미래의 자아를 상상의 방식을 통해 서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래서 후인들은 「귀거래혜사」에서 상상으로 쓴 미래부분을 근거로, 도연명이 전원생활을 향유하며 그 자신이 희망하는 사건들과 소망하는 가치들을 실제로 실현한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도연명의 은일생활을 흠모하여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도연명의 현실에서의 은거생활은 「귀거래혜사」에서처럼 늘 자적하고 여유로우며 내면의 평정이 유지된 상태는 아니었다. 도연명이 희구하고 계획한 인생은 진정한 고사의 삶이었지만, 도연명은 궁경자급(躬耕自給 난으로 가난과 기아를 면하기 어려웠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스런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 해는 집이 불에 타는 불운을 겪어야 했고, 가뭄으로 수확물을 얻지 못해 가장으로서의 가족의 배고픔을 지켜봐야하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했으며, 말년에는 걸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그는 「乞食」 시에서 자신이 음식을 구걸하는 장면을 진솔하게 묘사하였다. "굶주림이 닥쳐와 나를 핍박하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가다가다 이 마을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고 서툰 말을 꺼낸다. 주인은 내 뜻을 알아채고, 음식을 내어주니 헛걸음은 아니구나."[21] 도연명의 은일생활은 「귀거래혜사」에서와 같은 은자의 삶이 아니었고, 더구나 도연명은 은거생활에서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인들이 도연명의 은일생활과 진정한 고사로서의 형상을 주로 수용하고 그를 이상적인 인격으로 흠모하였다. 많은 문인들이 「귀거래혜사」의 주요 일화와 장면들이 도연명이 경험한 대자연에서의 교융과

21) 「乞食」: "飢來驅我去, 不知竟何之. 行行至斯里, 叩門拙言辭. 主人解余意, 遺贈豈虛來."

www.kci.go.kr

유희를 토대로 하였으나, 상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 간파하지 못한 점도 수많은 화도사 열풍과 도연명이 진정한 은자로서 존재했다는 인식 및 도연명의 우상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3. 한국한시의 「귀거래혜사」변용 양상

「귀거래혜사」가 한국에 전입된 것은 삼국시대 대략 수말(隋末 唐初 인 618년 전후이며,[22] 도연명집(陶淵明集 이 전입된 것은 늦어도 고려 1140년에서 1170년 사이이다.[23] 崔致遠 約 15)이 '귀거래'를 주제로 한 시문을 수용함으로써 시작된 한국의 도연명 수용사는 고려중기(1170-1270) 이후부터 송인의 「귀거래혜사」에 대한 평가 및 창작형식을 수용하면서 창작형식이 다양해졌고,[24] 도연명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가장 애호하는 문학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본장에서는 한국한시를 대상으로 형식적 변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형식적 변용 특징에 따른 분류는 편의상 고려와 조선의 문인이 시의 제목으로 삼은 용어를 채용하여 독도사시(讀陶辭詩 挹陶辭詩 節陶辭詩 로 명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도사시(讀陶辭詩)

고려시대 '귀거래'의 시구나 이를 주제로 한 문장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22) 도연명의 작품이 최초로 전입된 것은 한 편의 산문 「歸去來兮辭」와 여덟 수의 시가 실린 『文選』을 통해서이다.(張伯偉, 「『文選』과 韓國漢文學」, 『文史』第1輯, 2003, 99쪽)

23) 盧又禎 「陶淵明詩文在韓國漢文學中的傳播與接受」 南京 : 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211쪽.

24)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인은 蘇軾이 창도한 「和陶歸去來兮辭」와 「歸去來集字十首」의 창작 형식을 수용하였고, 이로써 '次歸去來辭'와 '集字詩'의 형식은 고려와 조선 문인이 애호하는 창작형식이 되었다.

www.kci.go.kr

『東文選』 辭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고려시대 차귀거래사는 이인로의 「和歸去來辭」 한 편 뿐이다. 그 대신 고려문인은 「귀거래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귀거래혜사」를 읽은 후 감상을 쓴 독도사시(讀陶辭詩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독도사시(讀陶辭詩 ㄴ 「귀거래혜사」를 읽은 후 감상을 쓴 시이다. 처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시를 지은 이는 고려 말의 李穡(1328-1396)과 元天錫 「讀歸去來詞」 「讀歸去來辭」 「讀陶元亮歸去來辭」[25]를 지었다. 이 중 이색의 「讀歸去來詞」를 보자.

> 돌아가서, 천년의 명성을 얻은 이여
> 높은 풍도를 지금 누가 따를 수 있으랴.
> 시를 지어 흥기하는 것은 다른 방도가 아니니
> 그의 참됨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 물가에 서서 언덕에 올라 때로 멀리 바라보고
> 창에 기대고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네.
> 처사로 진의 역법을 사용하였으니
> 강목은 빛나고 필법은 새롭다.[26]

이색은 도연명을 추앙한 고려시대의 홍유석학(鴻儒碩學 ㄴ로, 도연명은 천년이 지난 후에도 후인에게 존경받는 시인이자 두보와 비견되는 명성이 있다고 평가하며,[27] 당시에 도연명의 인품과 시문을 널리 알리고자 한 인물이다. 이색은 도연명이 절의를 지키기 위하여 은거의 생존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불후의 칭송을 얻었으며, 시를 지을 때 격률을 중시하지 않고 진솔함을 담는 것

25) 원천석은 이 시에서 도연명이 부귀영화의 외표를 중시하지 않았고 절의의 정신인 내표(內表)를 중시하였다고 찬양하였고, 도연명이 은일생활에서 누린 한적과 자득의 정신적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흠모하였다.

26) 「讀歸去來詞」 『牧隱詩藁』 卷8, 『韓國文集叢刊』冊4 : "歸去來兮千載人, 高風當日有誰親. 中興詩道非他術, 上合天心是此眞. 臨水登皐時縱目, 倚窓入室自怡神. 直書處士仍書晉, 綱目明明筆法新."

27) 『及庵詩集序』 『東文選』 卷87 : "今陶孟二集, 僅存若干篇, 令人有不滿之歎, 然因是以知其人於千載之下, 不使老杜專美天壤間, 是則編集之傳, 其功可小哉."

www.kci.go.kr

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도연명이 당시 부려한 문풍으로서 세상을 계도하려 하지 않고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절개와 수신으로서 천의를 따르려 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5, 6구는 「귀거래혜사」의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는 시를 읊조렸었다(登東皐以舒嘯, 臨淸流賦詩 와 '남쪽 창에 기대어 거리낌 없어, 누추한 좁은 방이지만 편안하다네.(依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의 시구를 운용하여 도연명이 은일생활에서 추구한 소유의 정신경계를 표현하였고, 마지막 두 구는 도연명이 갑자(甲子 를 사용함으로써 진조에 대한 절의를 지켰음을 찬양하였다.

조선시대의 문인 또한 독후감의 형식으로 도연명의 은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자신 또한 도연명의 절의를 숭상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李元孫 「讀陶淵明歸去來辭有懷」는 부귀공명을 초월하여 자연에 귀의한 도연명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역정과 은거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였다.

> 애당초 탈속하여 어긴 적 없는데
> 어찌 그 마음으로 팽택의 관직을 구하였던가.
> 높이 나는 기러기 한 번 날면 누가 매어 놓을 수 있으리
>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부니 마음이 으쓱해진다.
> 향리에게 허리를 숙이려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
> 산봉우리의 구름과 돌아가려는 새는 스스로 쉴 때를 아는 법.
> 전원이 있고 즐길 거문고와 서책이 있는데
> 부귀는 뭐 때문에 힘써 구하리.
> 길을 잃어 황급히 달려온 지 10년
> 반이나 황폐해진 전원을 바라보며 상심한다.
> 그리운 집이 보이니
> 행인에게 길 묻는 것을 번민하지 않는다.[28]

28) 『無何翁集・上』『韓國文集叢刊』冊2 : "早脫塵羈不受侵, 乞官彭澤豈其心. 冥鴻一擧誰能縶, 舒嘯東皐得意深. 腰折鄕兒豈足羞, 凾雲歸鳥自知休. 田園有樂琴書在, 富貴何須強力求. 奔趁十載尙迷途, 悵望田園已半蕪. 衡宇可瞻三宿後, 不煩前路問征夫."

www.kci.go.kr

시인은 자신의 분망한 관리생활을 돌아보며, 도연명이 전원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에 주목하였다. 「귀거래혜사」의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솟아오르고, 새는 날다 지쳐 돌아갈 줄을 안다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는 도연명 자신이 회귀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 시구로, 구름이 무심히 피어오르는 것이나 새가 숲으로 회귀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자연으로 회귀 하는 것은 숙명이며 진리에 순응하는 것임을 표출한 것이다. 이원손은 "오두미절요"의 고사를 제시하여, 도연명이 절의를 위해서 벼슬을 버리고 귀전 한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의 벼슬생활이 본성에 맞지 않아 천명에 순응하려고 은거했다고 보았다. 그는 도연명이 귀향한 배경과 비교하여 자신 또한 도연명처럼 10년이나 벼슬길에 있었음에도 아직 귀전(歸田 할 수 없음에 한탄하며, 훗날의 인생행로가 도잠과 같은 자연으로의 회귀임을 밝혔다.

兪瑒 「讀歸去來辭」에서 도연명의 '치사귀은'은 진왕조에 대한 절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창에서 높은 베게에 누우니 생각은 한가롭고, 오류와 연무(煙霧 로 온 마을이 안락하다. 소나무와 국화로 삼경의 일은 에오라지 끝내놓고, 거문고와 서적으로 백년의 설계를 잘 완비했네. 산중의 나날은 여전히 진대(晉代 세 멈춘 듯한데, 세속의 천지는 어찌 유유를 아는가. 천년 이래 사람들을 오래도록 경배하게 하고, 시편을 남겨 낭독하게 함은 일찍이 그친 적 없었다."[29] '北窓 五柳 松菊 琴書 ' 도연명 자신이나 도연명의 한적하고 즐거운 은거생활을 상징하는 물상이다. 유창은 이 물상들로써 도연명의 절조와 충의를 찬양하고자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도연명이 은거한 뒤에도 진나라를 향한 충심을 버리지 않고 유유가 정권을 잡은 속세를 피하여 은거함으로써 결국 그의 이러한 충분이 도연명에게 천 년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李玄逸 「宿原城村舍見陶公歸去來辭有感」을 지었다.

29) 『秋潭集』 卷之亨, 『韓國文集叢刊』 冊33 : "北窓高臥意悠悠, 五柳風烟樂一丘. 松菊聊成三逕業, 琴書良足百年謀. 山中日月猶留晉, 物外乾坤豈識劉. 千載令人長起敬, 朗吟遺什未曾休."

www.kci.go.kr

다 읽고서 재삼 감탄하니
내 마음 당신이 먼저 알았네.
부귀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요
천제가 사는 곳은 바라지 않는다.
샘물은 흐르고 나무는 무성해지고
봄날이 되니
서쪽 밭에서 한창 서둘러 일을 하고
몸소 호미와 쟁기잡고 농사일 한 것 떠오른다.
술통이 가득 찼던 건 아니지만
문에서 기다리다 기쁘게 맞아주던 어린 아이들이 있었지요.
남산의 소나무 응당 무성하고
동쪽 울타리 아래의 국화는 여전히 번성하네요.
내 생이 끝자락에 도착하려 하니
기쁘게 천명에 순응하지 어찌 더 의심하겠습니까?30)

「귀거래혜사」의 시어를 다량 운용하여 원작의 대의와 정취를 표현하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가치가 도연명의 안빈낙도, 천명에의 순응, 자연으로의 회귀, 궁경자급임을 반영하였다. 그는 「귀거래혜사」에 반영된 도연명의 처지와 생존방식이 자신의 내심에 강렬한 공명을 일으켰으며, 「귀거래혜사」가 무궁한 참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구는 "천명을 즐길 뿐 더 무엇을 의심하리(樂夫天命復奚疑 의 시구를 사용하여 회귀에 대한 의지와 초탈의 인생관을 드러내었다.

李象靖 「途中讀歸去來辭偶題一絶」을 지어, 도연명의 행적과 인생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대자연의 이치를 길러 스스로 사사롭지 않고, 빈한(貧寒 과 통달과 영욕은 원래 기복이 심하였지. 어떻게 도령이 전원으로 돌아가는 날, 생이 종착하려 할 때 만물의 호시절을 얻었는가."31) 작가는 도연명이 철리를 깨달은 사람이기에 정도를 걸었으며, 도연명

30) 『葛庵集』 卷1, 『韓國文集叢刊』冊127 : "讀罷再三歎, 吾心爾先知. 富貴非吾願, 帝鄕不可期. 川流木向榮, 正値三月時. 西疇事正急, 緬憶親鋤犁. 盈樽未可必, 候門有稚兒. 南岳松應茂, 東籬菊還滋. 吾生行且休, 樂天復奚疑."

31) 『大山集』 卷2, 『韓國文集叢刊』冊226 : "造化陶鎔自不私, 窮通榮辱故參差. 如何陶令歸田

www.kci.go.kr

이 전원으로 은거하기 전까지 인간이 가진 사사로움으로 겪게 되는 영욕이 들쑥날쑥 했지만, 결국 출사와 은거의 반복을 종식하고 귀전함으로써 초탈과 탈속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겼다. 마지막 두 구는 「귀거래혜사」의 "만물이 제때 만난 것을 부러워하며, 나는 인생살이 다해감을 탄식하노라(善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의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작가는 도연명이 속세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전원으로 돌아가자 탈속의 경계에 도달함으로써 만물이 주는 진리를 얻었음을 표출했는데, 28자 안에 도연명의 인생역정과 「귀거래혜사」의 철리를 응축적으로 담아내었다.

2) 읍도사시(**挹陶辭詩**)

읍도사시(挹陶辭詩 「 」 挹取十事 首 ㅣ 시를 짓는 형식으로, 「귀거래혜사」에 반영된 의미와 분위기를 수용하면서 작자의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읍도사시는 兪信一 .660-1699)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이 형식의 독창성은 한국의 「귀거래혜사」수용사에서 의의를 지닌다.

유신일은 자가 도숙(道叔 昌原 ㅣ며, 숙종 때 활약한 명관(名官 ㅣ다.[32] '揖陶 堂 扁額 ㅔ 쓰인 글자로, " 「귀거래혜사」에서 열 가지 일을 집어내어 시로 읊은 것이다."[33] 유도숙이 지은 「挹陶堂十詠」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작품에 화답한 문인들의 작품

日, 却把行休羨物時."

32) 유신일은 1699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상경하던 유생 李友白을 犯馬罪로 杖殺한 혐의로 투옥되었다. 『星湖僿說・人事門』 卷17에 따르면 "유신일은 본디 이름난 관원으로 병조 판서 득일(得一)의 종제(從弟)였는데, 살인죄를 범하고 여러 해를 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뭇 신하들이 애써 구하려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兪信一名官也. 兵判得一之從昆弟犯殺人罪閱年在囚, 羣臣莫不營救)."

33) 「次挹陶堂十詠韵」, 『明齋遺稿』 卷3, 『韓國文集叢刊』 冊135 : "蓋挹陶卽道叔之堂扁, 就歸去來辭中拈出十事以爲詠也."

www.kci.go.kr

을 통해서 유도숙이 뽑은 열 가지 사건을 알 수 있다. '남쪽 창에 기대어 거리낌이 없다(南牕寄傲 西疇有事 ,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솟는다(出岫孤雲 知還倦鳥 ,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인다(撫松盤桓 , '지팡이를 세워놓고 김매고 흙을 북돋는다(植杖耘耔 親戚情話 ,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시름 잊는다(琴書消憂 登皐舒嘯 , '시냇가에서 시를 읊조린다(臨流賦詩 .

崔錫恒 「挹陶堂十詠」 「挹陶堂十詠」을 지었는데, 그 서문에서 유도숙이 '읍도체'를 창조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다.

> 나의 벗 유도숙이 일찍이 영산의 남쪽에 집을 지어 엄숙하게 그곳에서 생을 마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평생 도정절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그 당을 '挹陶'라고 이름 붙이고서 「귀거래혜사」중 특히 마음에 와 닿는 열 가지 일을 취하여 각각 短律을 지어 고인을 벗으로 삼는 정회를 기탁하고 이로써 스스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으니, 벗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나에게 화답할 것을 청하였다.[34]

유도숙이 「읍도당십영」을 창작한 동기는 도연명의 인격에 대한 흠모에서였다. 유도숙은 귀거래사의 시어를 모아 글을 짓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도연명의 은일정신을 다른 문인과 교류하고자 하였고, 이는 동시에 자신이 도연명식의 은일생활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유도숙은 실지로 자신의 은일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타인에게도 도연명과 같은 정신철학 및 생활방식을 실천할 것을 설득하고자 자신의 「읍도당십영」을 최석항을 비롯한 林泳 .646-1696)[35], 尹拯 .629-1714) 등의 지인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읍도체'가 유도숙의 지인을 중심으로 전파된 계기가 되었다.

34) 「把陶堂十詠幷序」『損窩遺稿』 卷5,『韓國文集叢刊』冊169 : "吾友俞君道叔甫, 嘗築室於永山之陽, 愀然有終焉之志. 生平慕陶靖節之爲人, 名其堂曰把陶, 又取歸去來辭中尤會心者十事, 各賦短律一首, 寓其尙友之懷, 因以自娛, 而思與朋友共之, 要余一和."

35) 「與兪道叔」『滄溪集』 卷15,『韓國文集叢刊』冊159 : "松溪村裏, 一宵相訪, 厚義何可忘. 後來又蒙寄示挹陶諸詠, 且有新篇之贈, 老兄鄭重之意益可見矣."

www.kci.go.kr

윤증은 당시 문인에게 「귀거래혜사」가 갖는 문학적 영향력과 읍도시의 독특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귀거래혜사」는 본래 실의와 번뇌에 빠진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즐겨 읽으며 의미를 곱씹는 작품으로 혹은 그 운을 따라 그 성음을 본받은 자도 있고, 혹은 그 글자를 모아서 「귀거래혜사」의 의취를 서술한 자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읍도당십영」같은 이러한 격식은 보지 못했으니, 청신하고 매우 빼어나 참으로 좋아할 만하다.[36]

윤증은 「귀거래혜사」를 본받아 문장을 짓는 것이 조선에서 보편적이며 「귀거래혜사」를 짓는 작가층이 주로 득의하지 못한 이들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귀거래혜사」를 본받는 형식에 대해서는 차운시와 집자시가 대표적임을 서술하고, 동시에 읍도사시의 문체는 희귀하고 참신한 형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최석항, 윤증, 南龍翼 朴泰淳 .653-1704)은 모두 유도숙이 보여 준 「읍도당십영」을 읽고 이를 본떠 시를 지었다. 윤증은 「次挹陶堂十詠韻」의 서문에서 자신이 읍도체로 시를 짓게 된 동기를 서술하였다.

> 내가 스스로 만든 재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중에도 절교한 이들이 많았다. 창원에 사는 유도숙은 알고 지낸 적이 없건만 갑자기 고맙게도 나를 찾아왔는데, 그도 나와 같이 죄에 얽매인 까닭이니 도리어 부끄럽고 우스운 노릇이 어찌 아니겠는가? 도숙이 湖南에 출행하였다가 돌아가던 차에 재차 찾아와서 소매 속의 이른 바 「挹陶堂十詠」이라는 시를 내게 보여주었다. '읍도'는 즉 도숙이 기거하는 당의 편액 이름으로, 「귀거래혜사」에서 열 가지 일을 집어내어 시로 읊은 것이다. ……나는 몸이 쇠약하여 병까지 겹쳐서 시를 짓지 못한지 오래되었는데, 그 제목에 「귀거래혜사」의 일을 끌어다가 감상하는 재미에 빠져 반복해서 읊조리다보니 나도 모르게 드디어 「읍도당십영」

36) 「次挹陶堂十詠韵」『明齋遺稿』 卷3,『韓國文集叢刊』冊135 : "歸去來一辭固騷人墨客之所共咀嚼, 或步其韻效其聲響者有之, 或集其字述其意趣者有之, 猶未見有此一格, 淸新超絶儘可喜也."

www.kci.go.kr

에 차운하여 화답한다.37)

윤증을 방문한 유도숙이 거주하는 지역은 창원이다. 창원은 「귀거래혜사」가 성행한 지역 중 하나로, 유도숙이 도연명에게 가지고 있는 존경심은 특별한 것이었다. 유도숙은 자신처럼 윤증이 처한 정치적 실의와 스승 우암과의 절교로 인한 절망에 동감하였다. 실지로 윤증의 「차귀거래사」 서문에 그의 쓸개를 삼킨 듯 한 정신의 고통과 해탈에 대한 갈망이 기술하였다.38) 유도숙은 윤증이 경험한 비정과 자괴를 위로하고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의 진정성을 공감하고자 자신이 창조한 '읍취십영'의 형식으로서 교류의 정을 나누고자 하였다. 이 서문은 문인간의 교류가 「귀거래혜사」의 성행 원인의 하나였음은 물론 새로운 문학형식과 내용이 유전되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윤증의 「次挹陶堂十詠韻」은 청신하고 의경이 빼어나다. 윤증의 열 수 사언시는 도연명이 추구한 궁경농무(躬耕農務 소요한 일상 및 그 생활 속에서의 철리를 표현하였다. 그 중 두 수를 보자.

무릎 들여놓을 소박한 집 하나면,
창에 기대 자유로움 만끽하는 데는 문제없네.
남들이 업신여기는 게 싫다면야,
진정으로 고상한 이가 아니라네.39)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는 것이,

37) 「次挹陶堂十詠韵」 『明齋遺稿』 卷3, 『韓國文集叢刊』冊135 : "余以自作之孽, 見罪於時, 知舊多絶交者. 昌原兪君道叔, 曾未一識, 忽惠然來過, 豈以所坐同累故耶, 還可愧笑也. 道叔有行役于湖南, 歸路再訪, 袖所謂挹陶堂十詠者見示, 蓋挹陶卽道叔之堂扁, 而就歸去來辭中拈出十事以爲詠也. ……余重以衰病不能爲鉛槧事久矣, 愛其題目把玩之餘, 不覺吟詠之形于口也, 遂次而和之.."

38) 『明齋遺稿』 卷1, 「次歸去來辭幷」序, 『韓國文集叢刊』冊135 : "余以屛蟄微命, 分甘溝壑. 而置身表襮, 猥竊虛名, 表裏慙恐, 措躬無所. ……雖仰孤國恩, 負心忠孝, 而自此庶得以無所怵迫, 安意待盡, 此一幸也."

39) 『明齋遺稿』 卷3, 『韓國文集叢刊』冊135 : "只要容膝安, 非關倚聰傲. 若嫌人侮之, 便非眞高蹈."

www.kci.go.kr

우리 집안의 본분이라네.
우습기 그지없네, 일 년 내내 애써 일해도
몇 소쿠리 밥이나 얻게 될는지.40)

「次挹陶堂十詠韻」 열 수는 도연명이 은일생활에서 느낀 한적과 즐거움을 밝고 경쾌하게 노래하여, 사실상 윤증 자신도 도연명과 같은 무욕과 속세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로의 은일을 동경하고 있음을 게시하였다. 이 중 전자는 '남쪽 창에 기대어 거리낌이 없다(南牕寄傲 를 후자는 '서쪽 밭에서 일을 하다(西疇有事 의 의미와 정취를 노래하였다. 윤증은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진고(眞高 의 삶을 택한 도연명을 진정으로 고상한 인품을 지닌 이라고 찬양하고, '진고'의 조건 중 하나가 안빈낙도와 고수빈곤(苦守貧困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빈곤과 기아의 상황에서도 한적자득의 생활과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 도연명을 동경하였다. 이러한 동경은 도연명이 자연에서 찾으려 했던 자유와 초속적인 경계에 대한 경모에서 근원한 것이다.

남용익도 오언절구 「挹陶堂十詠」 西疇有事 를 취하여 지은 작품을 보자.

때마침 내린 좋은 비가 봄 농사를 재촉하고,
밭의 토양은 녹아서 부드러워졌네.
반복적으로 종들에게 당부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밭가는 소에게 여물 주라고.41)

은자와 이은(吏隱 의 생존 방식은 다르다. 도연명은 은거하여 궁경자급으로 생계를 꾸렸다. 이를 빗대 남용익은 계절에 맞춰 종들에게 농사에 힘쓸 것을 당부함으로써 자신도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박태순은 오언절구 「挹陶堂十詠用存窩韻爲兪道叔賦」를 지었는데, 시인의

40) 『明齋遺稿』 卷3, 『韓國文集叢刊』 冊135 : "勤力耕耘中, 吾家本分事. 可笑卒歲勞, 能得幾簞食."
41) 「挹陶堂十詠」 『壺谷集』 卷8, 『韓國文集叢刊』 冊131 : "田疇土脈柔. 靈雨催春事, 丁寧戒僮僕, 早起飯耕牛."

www.kci.go.kr

도연명의 인생철학에 대한 이해가 심원함을 엿볼 수 있다.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인다(撫松盤桓 를 제재로 한 시를 보자.

> 徂徠의 石介를 방문하니
> 소요하며 푸른 봉우리에 있네.
> 모름지기 강직하고 곧은 절개를 알았기에
> 진시황의 봉토를 받지 않았네.42)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배회하는' 도연명의 형상은 뜻이 높고 고결하며 명예를 쫓지 않는 구속되지 않은 삶을 상징한다. 시인은 1, 2구에서는 속세를 방황하던 자아가 대자연에 회귀하여 소요하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3, 4구에서는 수차례나 속세와 은거를 반복했던 갈등과 번민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전원에 은거한 것이 도연명의 강철 같은 절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3) 절도사시(節陶辭詩)

절도사시(節陶辭詩 ㄴ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에서 뽑은 시어나 시구의 함의와 의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자신의 지향을 투영하는 형식인데, 기본적으로 원작 「귀거래혜사」의 사유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절도사시는 차귀거래사나 집자시보다 창작수법이 훨씬 편리하면서도, 원작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시어나 시구만으로 마치 귀거래사 전편의 정수를 시 한 수에 집약시킨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도사시는 자주적인 해석을 가미한 참신한 형식이며, 독서와 창작과 감상이 결합되어 있다.

절사시를 처음으로 사용한 문인은 고려 말 원천석으로, 그의 칠언시 「節歸去來辭」는 「귀거래혜사」의 핵심 시어로써 도연명이 추구한 은거생활의 일면을 묘사하고 그의 절개를 찬양함으로써, 원작 전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

42) 『東溪集』 卷1, 『韓國文集叢刊』 冊51 : "爲訪徂徠叟, 逍遙在碧峯. 須知偃蹇節, 不受秦皇封."

www.kci.go.kr

하고자 하였다.

돌아가리라, 원하는 바대로 가서
거문고와 서적으로 즐거움을 삼고 근심을 잊으리라.
창에 기대고 광달 거만함에 기탁하여 시비를 논하고
소나무를 매만지며 자리를 배회한다.
가끔 김매려 지팡이를 세워 두고,
소리 내 시를 짓기도 하고 배도 타기도 한다.
하늘의 뜻을 즐겼고 천명을 아는데 어찌 의심하고 걱정하리요,
천년이나 후세에 남긴 교화 아득하고 뛰어나니 필적할 이 없네.43)

이 칠언율시는 귀거래의 의지, 은일생활의 즐거움, 낙부천명의 도리를 묘사하였는데, 마치 장문의 「귀거래혜사」를 응축한 듯하다. 원작의 의상을 요약하였고 장법에 기승전결이 있어 원작의 의취가 훨씬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거문고와 서적'으로 은일생활을 즐기는 도연명을 묘사하고, '依窓　撫樹盤桓'으로 번뇌와 소음으로 시름하던 속세의 삶을 벗어나 한적한 생활을 누리며 변치 않는 절개를 지켰던 도연명의 형상을 묘사했다. 마지막 구에서는 시인이 천명을 알고 이에 순응함으로써 후인에게 절의의 사표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도연명을 추앙하는 원인이 그의 유풍에 있다고 밝혔다.

여말 선초 卞季良　「節陶淵明歸去來辭句」도 귀거래사의 시어와 시구를 뽑아 원작의 정수를 전달하였다.

몸의 부림을 받음에 슬퍼지니
전원으로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실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나 멀리 온 것은 아니니
세상이 나와 서로 달랐기 때문이리.
아이종이 반가이 맞이하는 날
술병과 술잔 들어 내 손으로 따라 마시리.
가고 머무는 것은 끝이 있으니

43) 『耘谷行录』 卷4, 『韓國文集叢刊』 冊6 : "歸去來兮適所求, 琴書之樂實消憂. 倚窓寄傲論非是, 撫樹盤桓任去留. 或事耘耔而植杖, 還將賦詠亦乘舟. 樂天知命奚疑慮, 千古遺風夐絶儔."

www.kci.go.kr

천명을 뭣 때문에 더 의심하리.44)

이 시는 속세에서 고뇌하는 도연명의 형상과, 은거함으로써 기쁨에 젖은 도연명의 형상으로 나누었다. 화면상으로 전원으로 회귀하자 고향집에서 그를 반기는 집안사람들과 이를 자축하는 도연명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낸 듯하다. 변계량은 특히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 하게 된 원인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변계량은 도연명이 천성에 맞지 않는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천명을 따라 본성과 전원으로 회귀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였다.

李廷馣 「效淵明歸去辭詠詞中雲鳥松菊四絶」은 「귀거래혜사」의 네 가지 의상인 雲 鳥 松 菊 : 취하여 네 수의 오언절구를 지었다. 이 가운데 두 수 鳥 松 : 취하여 지은 작품을 보자.

봄이 오면 항상 즐거워
해가 기울면 지는 해와 더불어 돌아온다.
시인은 만물의 변화를 바라보고
구름 걸친 나무와 해를 가린 소나무로 사라진다.45)

외로운 소나무 절벽의 골짜기에서 자라고
오래된 나뭇가지 사이로 구름이 숨는다.
봄빛은 언제쯤 다 지려나
청쾌한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네.46)

이정암은 원작 "삼경은 거칠어져 가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있다(三徑就荒 秋菊猶存 ', "구름은 무심히 산에서 솟아나고, 새들은 날다 지쳐 돌아가야 함을 안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

44) 『春亭集』 卷2, 『韓國文集叢刊』冊8 : "怊悵爲形役, 田園胡不歸. 實迷塗未遠, 世與我相違. 童僕懽迎日, 壺觴自酌時. 去留知已矣, 天命復奚疑."
45) 「效淵明歸去辭詠詞中雲鳥松菊四絶・鳥」 『四留齋集』 卷1, 『韓國文集叢刊』冊51 : "春來常自樂, 日西相與還. 詩人觀物化, 雲木翳松關."
46) 「效淵明歸去辭詠詞中雲鳥松菊四絶・松」 『四留齋集』 卷1, 『韓國文集叢刊』冊51 : "孤松生絶壑, 老柯入雲深. 春光幾時盡, 淸風無古今."

www.kci.go.kr

며 서성거린다(撫孤松而盤桓 '의 시구를 사용하였다. 본래 구름과 새는 도연명의 출사와 은일 사이에서의 배회와 종식을 상징하며, 소나무는 도연명의 절개와 은일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의 정취나 이치를 수용하지도 않았고, 은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작가는 「귀거래혜사」의 시어를 빌어 왔으나, 도리어 한 편의 산수화의 정경을 멀리서 관망하는 듯 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金昌協 「春日齋居漫用陶辭木欣向榮泉涓始流分韻爲詩」는 원작 "나무는 흐드러지게 녹음이 지려하고 샘물도 졸졸졸 흘러가기 시작하네(木欣向榮 泉涓始流 의 시상을 확장하여 8수의 오언시를 지었는데 모두 생기발랄한 춘경이다. 그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산수전원시인으로, 그의 산수전원시는 아름다운 경물과 한적한 심태 및 산수에서의 즐거움과 흥취를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 작품 역시 춘경으로서 안빈낙도, 궁경자족의 은일생활을 묘사하였고, 자연의 경물로서 은일한적을 표현하였다. 김창협의 절도사시는 봄날의 자연풍경과 산수전원의 한적을 조화롭게 묘사한 점이 특징적이다. 여섯 째 수를 보자.

봄 산이라 경치도 아름다워라
울창한 숲 아지랑이 피어오른다.
일어나 이따금씩 혼자 가 보면
황량한 골짜기엔 길도 없어라.
바위틈 샘가에 편히 쉬면서
손 담궈 찰랑찰랑 장난치기도 하네.
울퉁불퉁 옹이진 천 길 소나무
봄바람을 맞고서 일렁거리니
보는 기분 너무도 황홀한지라
해 지도록 돌아가야 함을 잊었네.[47]

김창협은 자연과 조화된 삶과 은일한적의 생활면모를 묘사하였는데, 춘색

47) 『農巖集』 卷1, 『韓國文集叢刊』 冊161 : "春山有佳色, 霞氣上蔚芊. 振衣時獨往, 荒谷無衛阡. 巖泉恣流憩, 濯手弄涓涓. 磊砢千丈松, 披拂好風前. 洽然所心善, 日晩不知旋."

www.kci.go.kr

이 충만하고 사실과 정경을 결합하되 이취를 부각하는데 힘쓰지 않아 특색이 있다. 이 시에 표출된 고요한 심경 및 은근하고 청아한 의경은 왕유가 추구한 고상함과 담백함이 드러난다. 특히 거주지 일대의 풍경 묘사로 봄을 상징하는 경물을 배열하여 명리에 담백하고 유연자적하는 생활태도를 전달하였다.

4. 나오는 말

한국에서의 「귀거래혜사」의 수용과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화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연구 내용은 화도사를 지은 작가의 인생과 화도사의 내용을 연관 지어 연구하는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원작 「귀거래혜사」의 주제, 문체, 구성의 문제를 토론하여 수용과 변모 원인을 찾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고, 화도사 이외의 형식상의 변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귀거래혜사」의 주제, 문체, 구성에 대한 여러 시각을 조명함하여, 「귀거래혜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되는 원인을 수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원작 「귀거래혜사」의 예술성에서 탐색하고자 하였고, 이를 「귀거래혜사」의 한국한시에서의 형식상의 변용 양상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첫째, 「귀거래혜사」는 주제, 문체, 구성이 독창과 참신을 가진 도체(陶體 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이다. 「귀거래혜사」의 '배회'와 '성찰' 그리고 '회귀'의 주제는 많은 후인이 이 작품을 수용하고 공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도연명은 「귀거래혜사」에서 그가 회귀한 표면적인 이유는 누이동생의 죽음이며, 정신적인 이유는 본성에 대한 성찰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후인은 도연명의 회귀의 문제가 정신철학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보다는 '오두미절요'나 '진조에 대한 절의'와 연관시켰는데, 이것은 그들이 「귀거래혜사」에서 도연명이 사직한 '동기'나 '성찰'의 문제보다는 사직이라는 '행동

www.kci.go.kr

과 결과'에 더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문체 방면에서, 도연명은 제목에서 「귀거래혜사」의 문체(文體 辭 임을 게시하였다. 그렇지만 도연명이 전범화된 송에 들어서서 「귀거래혜사」는 도연명이 창조한 문체라는 견해가 생겨났다. 역대 시론가들은 「귀거래혜사」가 초사에서 연원한 사(辭 라는 다른 독자적인 문체이며, 가(歌 辭 가 결합된 독특한 문학 형식이라고 평론하였다. 이것은 「귀거래혜사」를 가(歌 辭 라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가(辭 辭 로 아닌 독창적인 문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엄우가 『창랑시화 · 시체』에서 도연명의 작품을 도체(陶體 로 규정하고 있고 수많은 화도사의 창작 열기가 증명하듯, 「귀거래혜사」는 도연명을 대표하는 문체이다. 「귀거래혜사」의 모방 열기는 가와 사가 결합된 「귀거래혜사」의 신선하고 새로운 양식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구성에서 도연명은 한 작품 안에 현재, 미래, 과거를 공존시키는 삼단구성방식을 활용하였다. 「귀거래혜사」의 주요 내용은 자아의 '미래'에 집중되어 있다. 도연명은 「귀거래혜사」에서 그가 희구하는 자유로운 자아의 형상을 미래에 두었다. 그가 희구한 미래의 자아는 자연, 본성, 지천명, 안빈낙도의 경지에서 자유롭고 한적한 삶을 즐긴다. 이것은 '미래'의 자아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도연명이 창안해낸 구성방식이다. 후인들은 「귀거래혜사」를 수용하면서, 「귀거래혜사」가 미래의 자아를 상상의 방식을 통해 서술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기도 하고, 구성상의 특성을 주목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시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점이 「귀거래혜사」가 다양한 내용을 담는 양식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둘째, 「귀거래혜사」는 사(辭 라는 형식 외에 '한국한시'에 수용되어 독도사시(讀陶辭詩 挹陶辭詩 節陶辭詩 의 형식으로 변용되었다. 한국한시에서의 「귀거래혜사」의 형식적 변용은 도연명의 시문이 널리 유전된 고려 말에 출현하였다. 도연명을 존숭한 이색과 원천석을 중심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독도사시와 절도사시의 형식이 시로 변용되어 출현한 것은 장르와도 연관성이 있다. 고려 중기 이후로 「귀거래혜사」의 시어와 시구는 드물지

www.kci.go.kr

않게 출현하지만, 차귀거래사(次歸去來辭 「和歸去來辭」 한 편 뿐인 것으로 보아, 고려시기에 「귀거래혜사」의 문학 형식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문인들은 길고 익숙하지 않은 사(辭 의 장르 대신에 운용이 용이한 시의 형식으로 변용하였을 것이다. 「귀거래혜사」가 가(歌 辭 辭 歌 와 같은 독특한 문체라는 점이 「귀거래혜사」를 시로 변용하는데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辭 보다 익숙한 장르인 시가(詩歌 로 변용하면, 차귀거래사의 형식보다 짧으면서도, 보다 함축적으로 「귀거래혜사」의 정화와 대의 및 수용자의 지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참신하다. 그리고 시화나 비평서가 아니더라도 시의 형식으로 작품비평과 인물비평을 하기에도 용의하다. 독도사시(讀陶辭詩 는 작품비평과 인물비평의 성격이 강하여, 「귀거래혜사」의 취지와 작품성, 도연명의 고상한 인품, 숭고한 절의,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은거한 행적이 현실도피인지 유가사상에 부합하는 충절인지에 대해 비평하여, 시화와 비평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읍도사시(挹陶辭詩 兪信一 이 창조한 새로운 문체로, 유신일이 사는 창원과 그의 지인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는데, 이 형식은 한국의 「귀거래혜사」수용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읍도사시는 한국의 독도사시나 절도사시와 비교해 도연명의 「귀거래혜사」에 반영된 다양한 사건과 장면을 다채롭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보다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록 읍도사시의 성행이 일부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 한정해서 성행하였지만,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작품이 된 「귀거래혜사」를 변용하여 참신과 독창성을 갖춘 문체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화도사가 소식의 창도에 의한 형식인데 반해, 읍도사시는 조선의 문인이 창도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주목해야 한다. 읍도사시의 출현 배경과 성행은 도연명의 생존철학에 대한 존숭과 생존방식에 대한 동경뿐만 아니라, 17세기 중후반 정치와 현실에 실의한 문인의 상흔 및 은일문화와 관계가 있다.

www.kci.go.kr

參考文獻

남윤수, 『韓國의 和陶辭 硏究』, 서울 : 亦樂, 2004.
민족문화추진회편, 『韓國文集叢刊』,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8-2005.
서거정, 양주동 외 역, 『東文選』,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2.
김보경, 「韓國 和陶詩 硏究 序說」, 『中國文學』 제66집, 2011.
노우정, 「주희의 도연명의 시가 수용과 인격 비평: 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제35집, 온지학회, 2013.
박완식, 「〈和歸去來辭〉의 性理學的 意識樣相」, 『語文硏究』 제36집, 어문연구학회, 2008.
조기영, 「歸去來의 수용과 문학적 전개」, 『淵民學志』 제2집, 연민학회, 1994.
하상규, 「韓國 自然詩歌에 끼친 陶淵明의 影響」, 동아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6.
曹虹, 『中国辭賦源流綜論』, 北京 : 中華書局, 2005.
沈約, 『宋書』, 北京 : 中華書局, 1974.
陶潛撰, 《箋注陶淵明集》, 李公煥箋註, 台北 : 国立中央圖書館, 1991.
陶潛撰, 《陶淵明集校箋》, 楊勇校箋,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6.
陶潛撰, 《陶淵明集箋注》, 袁行霈箋注, 北京 : 中華書局, 2003
陶潛撰, 《陶淵明詩箋證稿》, 王叔珉箋證, 北京 : 中華書局, 2007.
何文煥 輯, 『歷代詩話』, 北京 : 中華書局, 1983.
胡仔, 『苕溪漁隱叢話』, 廖德明校點, 北京 : 人民文学出版社, 1962.
蘇軾, 『蘇軾詩集』, 王文浩輯註 · 孔凡禮點校, 北京 : 中華書局, 1982.
袁行霈, 『陶淵明硏究』, 北京 : 中華書局, 2009.
張伯偉, 「陶淵明的文学史地位新論」, 『人文中国学報』第15期,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9.
盧又禎, 「陶淵明詩文在韓國漢文學中的傳播與接受」, 南京 : 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www.kci.go.kr

Abstract

Literary value and formal transfiguration in the poem for the Guiqulaici(歸去來兮辭 : A song of returning to the native home for the integrity of personality)
- As perspective of korean classical poetry

Roh, Woo-Jeung

This paper reiluminates literary value of Guiqulaici(歸去來兮辭) and aims to study formal transfiguration for Guiqulaici in korean classical poetry and obtain following results. Firstly, Guiqulaici is a literature which has the originality and novelty. Themes like wandering, self-examination, and reversionv are original subject which Tao Yuanming try to use in the Guiqulaici in the chinese literature. Literary style of Guiqulaici had been created by Tao Yuan-ming with his philosophy and literary value as original literal convention to combine song (歌) and message(辭). Tao Yuan-ming used three-tier composition which co-exists past, present and future in a literary work. This is configuration method which is created by Tao Yuan-ming in order to depict ego in the future effectively. Originality of subject and form like this affect hermit Tao Yuan-ming's idolization and let the Guiqulaici bring into vogue.

Secondly, Guiqulaici had been transfigurated as form of Dutaocishi(讀陶辭詩), Yitaocishi(挹陶辭詩) and Jietaocishi(節陶辭詩) while being accommodated by korean classical poetry except the form "message(辭)". Transfiguration of form is shorter than Guiqulaici and is suitable for representing purification, great cause and consumer's aim refreshingly. Especially Yitaocishi(挹陶辭詩) as new literary style, is specialized by describing own's life honestly throughout accomodating event and scene of Guiqulaicivariously while comparing with Dutaocishi(讀陶辭詩) and Yitaocishi(挹陶辭詩).

Key words : Tao Yuan-ming, Guiqulaici, Korean classical poetry, Chinese literature

www.kci.go.kr

투 고 일 : 2014. 1. 17. / 심 사 일 : 2014. 1. 20.~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

www.kci.go.kr